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18.6.30.(토) ~ 2018.7.27(금)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 학원은 SLC 였습니다. 위치는 산속에 위치해 있습니다. 학원에서 시내로 나가기 위해서는 FB나 택시를 타야하는데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교통비는 비싸진 않지만 자주 나가다 보니깐 후에는 교통비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학원의 규모는 5층 정도의 건물이고 3인 1실을 씁니다. 식당의 밥은 맛있었습니다. 시설은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일단 벌레가 엄청 많습니다. 이번에 와이파이를 다 설치해 주셨다 했는데 비가 오면 끊기기 때문에 따로 챙겨 가시는게 좋습니다. 첫 날 수빅 투어 하면서 유심칩을 사는데 그 날 잘 생각해서 더 좋은 걸 사는게 좋습니다. 우리방 같은 경우는 보일러가 터져서 물에서 전류가 흐르는 위험한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화목하고 선생님들과 다 인사하고 즐거운 수업 분위기입니다.
수업	분반은 맨처음 레벨 테스트를 보고 5명씩 1반을 합니다. 수업 내용은 레벨 테스트를 보고 난 후 자신의 레벨에 맞춰 교재를 받게 됩니다. 1:1 수업은 레벨에 따라 다른 책으로 하고, 그룹 수업은 같은 책으로 합니다. 1:1 수업 4시간, 그룹 수업 4시간으로 총 8시간 수업입니다. 수업 방법은 교재로 주로 하고, 선생님과 프리토킹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들은 대부분 좋은 선생님이 많습니다. 수업 과제는 종종 내주시는데 어려운 과제는 아닙니다.

Activity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 -수빅 투어 맨 처음이라 어떤 건지 잘 모르 실텐데, 그래도 약간의 위치정도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갈 곳이거든요.... 거기밖에 갈곳이 없어요. 만약 선생님과 같이 시장 간다면 망고 꼭 사세요. -안바야코브 비치 안바야 코브 비치갈 때는 수건이나 간단히 씻을건 챙겨 가야 합니다. 가기전에 천페소 정도 돈을 걷는데 자신이 안쓴돈은 돌려줍니다. 가서 점심을 먹게 되는데 다들 뷔페는 별로라고 했고, 메뉴 시켜서 먹는게 맛있습니다. 파스타가 맛있었습니다. 안바야코브 비치 망고주스가 이때까지 먹은 망고주스 중에 가장 맛있었습니다. -마닐라 투어 마닐라 투어 때 우산과 넉넉한 돈을 챙겨가야 합니다. 쇼핑물 가는데 엄청 커서 여기서 대부분 기념품 많이 삽니다. 그런데 마닐라 투어를 하는 방법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투어를 할 때 아무것도 모른채 계속 걷고 돌아다니다가 쇼핑물 가서 마닐라 투어는 조금 실망스러운 활동이었습니다. -바베큐파티 우리돈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400페소씩 걸어서 준비 합니다. 선생님들도 초대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 같이 놀 수 있고, 즐거운 활동이었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비가 많이 옵니다. 작은 우산을 반드시 챙겨가야 합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 안전한 편입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 외부 숙소() 기타()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 외부식당() 기타()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학교식당 : 맛있었습니다. -외부식당 : 현지 음식이 많이 짭니다. 그러나 맛있는 곳 도 많습니다. 하 버포인트만 가지 마시고, 수빅베이 근처에 맛집 많으니깐 그쪽으로 가서 먹는게 싸고 맛도 더 좋습니다.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 -교통은 너무 불편했습니다. SENDING 서비스 꼭 스쳐서 나가는게 좋습니 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727,000	출국 전 사전 납부
개인 돈	400,000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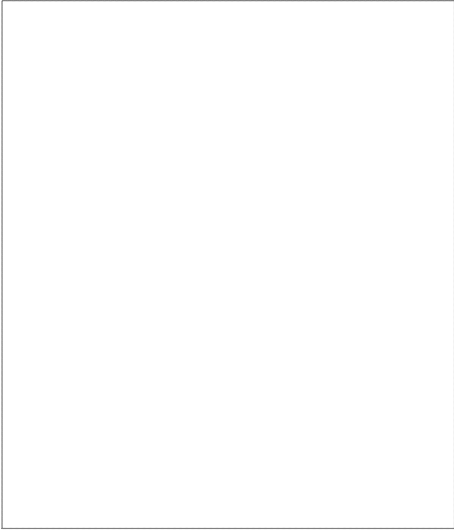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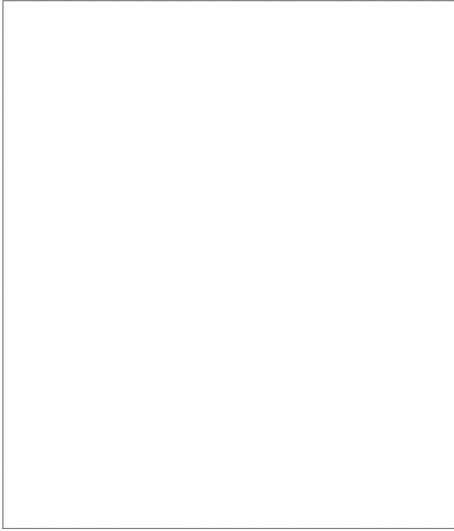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 출국전 포켓 와이파이, 작은 우산, 상비약을 챙겨가는게 좋습니다. 선생님들을 드릴 팩
이라던지 한국 화장품과 같은 좋은 선물들도 챙겨가는게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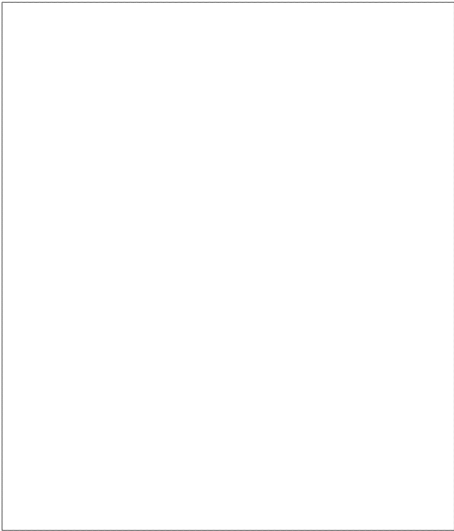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처음에는 와이파이도 잘 되지 않고, 학원 시설도 좋지 않고, 수업도 너무 많아서 힘들었습니다. 첫주가 지나고 둘째 주부터 점점 적응 되면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수업도 적응 되면서 좋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프리토킹 하면서 안쓰던 단어들도 말하게 되면서 점차 영어 실력이 향상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너무 다 착하시고 좋으셔서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선물 사올 걸이라고 후회 많이 했습니다. 하버포인트에 있는 맛집도 다 가보고, 수빅베이 맛집도 다 가봐서 잘 놀고, 공부도 많이 하고 온 것 같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안바야코브 비치 망고주스	안바야코브 비치 파스타
	
몰 오브 아시아 치즈 타르트	SLC 고양이

	
텍사스 조 스테이크	동물원 악어